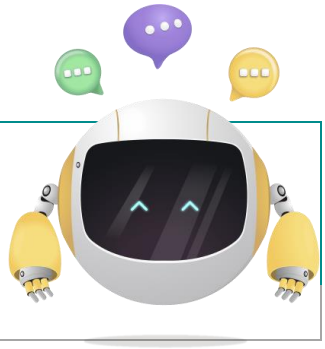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3.13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어도비, 사용자 지표는 좋으나, 수익화 증명 필요

어도비(ADBE.US): 사용자 지표는 좋으나, 수익화 증명 필요

주요 지표 & 가이던스

- FY26년 1분기 매출 64억(+12% YoY), 조정 EPS 6.06 달러로 시장 예상치 62.8억, 5.87 달러 상회
- FY26년 2분기 가이던스 매출 64.3~64.8억, 조정 EPS 5.80~5.85 달러로 시장 예상치 5.68 달러 상회. 조정 OPM 가이던스는 44.5%로 1분기 대비 2bp 감소한 수치를 제시. 이는 이벤트 비용과 신규 이니셔티브 마케팅 투자 증가가 반영됐기 때문. FY26 연간 가이던스는 기존 매출 259~261억 달러, ARR 성장률 10.2% 수준을 유지

리스크 포인트

- Shantanu Narayen가 18년간의 CEO 재임 후 퇴임 의사를 발표. Shantanu는 후임 확정 시까지 CEO 유지, 이후 이사회 의장으로 잔류 예정
- 새로운 사용자를 즉시 유료 전환하지 않고 freemium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을 사용 중. 장기적으로는 'Acrobat Reader 무료 배포 → PDF 생태계 장악 → Acrobat 유료 전환'이라는 성공 사례를 반복하겠다는 전략. 하지만 단기 ARR 성장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AI로 인해 역풍을 얻는 사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무료 사용자의 유료 전환을 기대하고 있음. 현재 이미지/비디오/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업인 Adobe Stock(Getty Images, Shutterstock과 유사한 사업) 부문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 해당 사업의 규모는 연간 약 4.5억 달러 수준

오라클(ORCL.US): 순항 중인 OCI & 상향된 가이던스, 여전히 남은 체크포인트

3QFY26 실적 지표 시장 컨센 상회, 클라우드 매출 41% 성장, 가이던스 상단 부합

- FY26년 3분기(2월 결산) 주요 실적 지표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 매출액 172억 달러(+22% yoy), 조정 EPS 1.79 달러(+21%)를 기록(컨센 169억, 1.72)
- 클라우드 매출액은 89억 달러로 고정통화(CC) 기준 41% 성장,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상단에 부합한 것은 기존 보다는 일정 대비 공급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
- 클라우드 매출은 IaaS 49억 달러(+81%), SaaS 40억 (+11%)이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상회하며 52%까지 상승. RPO는 5,530억 달러를 기록, 전분기 대비 290억 달러를 추가. 추가계약분은 대부분 고객의 선지급금으로 자금이 확보되어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긍정적인 실적과 상향된 가이던스,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들

- 오라클은 4분기 클라우드 성장 가이던스를 44%~48%(CC기준)로 제시. 매출액 성장 19%~21%를 전망,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조정 EPS 가이던스는 1.98 달러(+16%)로 컨센(1.94)을 상회. FY26년 연간 매출액(670억)과 Capex(500억 달러) 가이던스는 유지하고, FY27년 매출액 가이던스는 900억 달러로 상향조정
- 1) RPO 추가를 통한 고객 기반 강화, 2) OCI 성장 가속화, 3) 단기 자금조달 우려 해소 등은 이번 실적 이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 1) RPO에서 매출로의 전환 속도와 가이던스 산정 관련 신뢰도는 추가적인 확인 필요, 2) 클라우드 비중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레거시 부문과 SaaS 사업 관련 불확실성, 3) 높은 부채 비중과 CY26년 이후의 자금 조달 관련 이슈 등은 여전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리스크 요인으로 보임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트럼프의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 예정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을 발표하며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가 서명
- 요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직접 필요한 전력 자원을 '짓거나, 가져오거나 또는 구입해(Building, Bringing or Buying)'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것
- 신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 가구에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네트워크 개선 비용도 포함
- 추가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역의 유틸리티 사업자 및 관할 주정부와 신규 요금체계를 협상해야 하며 구축된 전력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는 실제 전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요금을 지불해야
- 11월 중간선거 이전 데이터센터를 확충하면서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Nebius에 20억 달러 투자,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플랫폼 NemoClaw 공개 예정

- 엔비디아가 AI 클라우드 전문기업 Nebius Group(NASDAQ: NBIS)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
- SEC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주 당 94.94달러에 지분 약 8.3%를 매입하는 구조다. 양사는 AI 팩토리 설계, 추론 및 에이전틱 AI 스택 구축, 인프라 배포, 플릿 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하며, Nebius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Rubin GPU, Vera CPU, BlueField 스토리지 시스템을 조기 도입해 2030년까지 5G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구축할 계획

알파벳(GOOGL.US): Gemini 기반 Ask Maps 출시

- 구글이 자사 지도 서비스에 Gemini AI를 접목한 새로운 기능 Ask Maps를 공식 출시
- 월간 활성 사용자 20억 명 이상을 보유한 구글맵에 대화형 챗봇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것으로, 사용자가 자연어로 복잡한 실생활 질문을 던지면 Gemini 모델이 리뷰, 위치 정보, 사용자 과거 검색·저장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개인화된 추천을 지도와 함께 제공
- 예컨대 여행 경로상의 추천 경유지를 물으면 경로, 예상 소요시간, 실제 방문자들의 팁까지 함께 제시하며, 마음에 드는 식당이 있으면 바로 예약까지 연결하는 등 탐색에서 행동까지의 전환을 앱 내에서 완결

아마존(AMZN.US): AI 코딩 도구 관련 연쇄 장애에 긴급 내부 점검 돌입, 채권 발행에 1,260억 달러 수요 집중

- 아마존이 AI 지원 코딩 오류와 연관된 일련의 서비스 장애를 논의하기 위해 리테일 기술 조직의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 한 주 동안 높은 영향 범위의 Sev 1급 장애가 4건 발생한 데 따른 것. 지난 목요일에는 약 6시간 동안 웹사이트와 앱에서 결제, 계정 정보 접근, 상품 가격 표시가 불가능한 대규모 장애가 있었음
- 아마존 측은 AI와 관련된 사고는 단 한 건이며 AI가 작성한 코드가 원인인 경우는 없고, 엔지니어가 AI 에이전트의 부정확한 조언을 따른 것이 문제였다고 해명

메타(META.US): AI 에이전트 소셜네트워크 Moltbook 인수, 자체 AI 추론 칩 MTIA 4세대 로드맵 공개

- 메타가 AI 에이전트 전용 소셜 미디어 플랫폼 Moltbook을 인수. CEO Matt Schlicht와 COO Ben Parr가 전 Scale AI CEO Alexandr Wang이 이끄는 Meta Superintelligence Labs(MSL)에 합류
- Moltbook은 올해 1월 출시된 Reddit 형태의 플랫폼으로, AI 에이전트들이 자율적으로 게시·댓글·투표하며 상호작용하는 구조. 출시 수일 만에 수백만 개의 봇이 등록되며 실리콘밸리의 화제가 되었고, 올해 초 폭발적으로 확산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OpenClaw(구 Clawdbot/Moltbot)를 기반으로 구축

오픈AI(비상장): ChatGPT에 인터랙티브 시각화 기능 도입

- OpenAI가 ChatGPT에 동적 시각 설명(dynamic visual explanations) 기능을 새롭게 도입
- 이 기능은 수식, 변수, 수학적 관계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인터랙티브 모듈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접 수치를 조절하면 결과가 즉시 반영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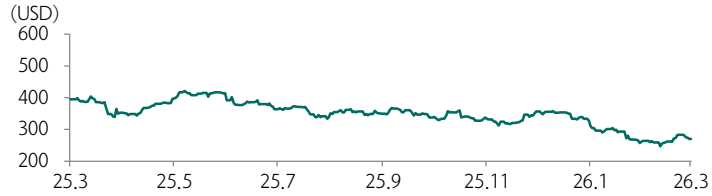
앤스로픽(비상장): 마이크로소프트, 펜타곤의 Anthropic 공급망 리스크 지정에 법적 개입하며 임시 차단 명령 요청

-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법정조언서)를 제출하며, 펜타곤이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명령(TRO)을 내려달라고 요청

어도비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161

최근 주가 추이



어도비(ADBE.US): 사용자 지표는 좋으나, 수익화 증명 필요

주요 지표 & 가이던스

- FY26년 1분기 매출 64억(+12% YoY), 조정 EPS 6.06 달러로 시장 예상치 62.8억, 5.87 달러 상회
- FY26년 2분기 가이던스 매출 64.3~64.8억, 조정 EPS 5.80~5.85 달러로 시장 예상치 5.68 달러 상회. 조정 OPM 가이던스는 44.5%로 1분기 대비 2bp 감소한 수치를 제시. 이는 이벤트 비용과 신규 이니셔티브 마케팅 투자 증가가 반영됐기 때문. FY26 연간 가이던스는 기존 매출 259~261억 달러, ARR 성장률 10.2% 수준을 유지

견조한 본업 성장

- Acrobat, Creative Cloud, Express, Firefly 합산 MAU 8.5억명 초과 (+17% YoY). 크리에이티브 도구들 중 무료로 접근 가능한 웹/모바일 버전인 Creative freemium MAU는 0.8억명 돌파 (+50% YoY)
- Firefly 앱, Firefly 크레딧팩, Firefly Enterprise 합산 ARR이 2.5억 달러 돌파. CEO는 다음 10억 달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
- AI 생성 크레딧인 Generative credit consumption은 전 분기 대비 45%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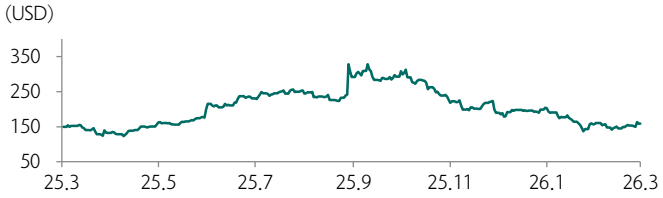
리스크 포인트

- Shantanu Narayen가 18년간의 CEO 재임 후 퇴임 의사를 발표. Shantanu는 후임 확정 시까지 CEO 유지, 이후 이사회 의장으로 잔류 예정
- 새로운 사용자를 즉시 유료 전환하지 않고 freemium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을 사용 중. 장기적으로는 'Acrobat Reader 무료 배포 → PDF 생태계 장악 → Acrobat 유료 전환'이라는 성공 사례를 반복하겠다는 전략. 하지만 단기 ARR 성장에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AI로 인해 역풍을 얻는 사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무료 사용자의 유료 전환을 기대하고 있음. 현재 이미지/비디오/오디오 라이브러리 사업인 Adobe Stock(Getty Images, Shutterstock과 유사한 사업) 부문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 해당 사업의 규모는 연간 약 4.5억 달러 수준

오라클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457

최근 주가 추이



오라클(ORCL.US): 순항 중인 OCI & 상향된 가이던스, 여전히 남은 체크포인트

3QFY26 실적 지표 시장 컨센 상회, 클라우드 매출 41% 성장, 가이던스 상단 부합

- FY26년 3분기(2월 결산) 주요 실적 지표는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 매출액 172억 달러(+22% yoy), 조정 EPS 1.79 달러(+21%)를 기록(컨센 169억, 1.72)
- 클라우드 매출액은 89억 달러로 고정통화(CC) 기준 41% 성장,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 서프라이즈는 아니더라도 상단에 부합한 것은 기존 보다는 일정 대비 공급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
- 클라우드 매출은 IaaS 49억 달러(+81%), SaaS 40억 (+11%)이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상회하며 52%까지 상승. RPO는 5,530억 달러를 기록, 전분기 대비 290억 달러를 추가. 추가계약분은 대부분 고객의 선지급금으로 자금이 확보되어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자금조달 우려 완화 & 오픈AI 인프라 투자 조정 긍정적

- 오라클은 지난 2월 CY2026년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며 투자적격 신용등급과 대차대조표의 건전성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 기존에 시장은 400억 달러 정도의 대규모 부채 조달에 대한 부담을 우려했으나 부채 규모를 약 250억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완화
- 최대 200억 규모의 ATM(장내 시가발행) 주식발행 계획은 희석 우려를 줄 수 있으나 자금 조달 관련 불안감을 낮췄고 더 유리한 조건의 채권발행을 가능하게 하여 긍정적으로 작용. 이번 컨콜에서 투자등급 채권과 의무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 총 300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힘
- 최근 오픈AI의 초대형 펀딩 완료와 스타게이트 투자약정 하향 조정은 오라클에게 긍정적. 대규모 자본유입은 오픈AI 대금 지불 관련 우려를 완화시켰으며, 스타게이트 투자 조정은 자체 데이터센터 확장을 줄이고 파트너 활용 비중을 높인다는 점에서 핵심 파트너인 오라클에게 긍정적

긍정적인 실적과 상향된 가이던스, 남아있는 리스크 요인들

- 오라클은 4분기 클라우드 성장 가이던스를 44%~48%(CC기준)로 제시. 매출액 성장 19%~21%를 전망,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조정 EPS 가이던스는 1.98 달러(+16%)로 컨센(1.94)을 상회. FY26년 연간 매출액(670억)과 Capex(500억 달러) 가이던스는 유지하고, FY27년 매출액 가이던스는 900억 달러로 상향조정
- 1) RPO 추가를 통한 고객 기반 강화, 2) OCI 성장 가속화, 3) 단기 자금조달 우려 해소 등은 이번 실적 이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요인. 1) RPO에서 매출로의 전환 속도와 가이던스 산정 관련 신뢰도는 추가적인 확인 필요, 2) 클라우드 비중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레거시 부문과 SaaS 사업 관련 불확실성, 3) 높은 부채 비중과 CY26년 이후의 자금 조달 관련 이슈 등은 여전히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리스크 요인으로 보임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데이터센터 NIMBY와 트럼프의 대책

트럼프의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 예정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을 발표하며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오라클, xAI가 서명
- 요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직접 필요한 전력 자원을 '짓거나, 가져오거나 또는 구입해(Building, Bringing or Buying)' 자체적으로 수요를 충족하는 것
- 신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반 가구에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네트워크 개선 비용도 포함
- 추가적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역의 유틸리티 사업자 및 관할 주정부와 신규 요금체계를 협상해야 하며 구축된 전력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는 실제 전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요금을 지불해야
- 11월 중간선거 이전 데이터센터를 확충하면서도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

소비자 전력 요금 인플레로 인한 NIMBY 대응책으로 해석

- 미국에서 데이터센터는 최근 1) 착공 건수, 2) 예상 Capex 규모, 3) 용량 등 모든 지표에서 가속화
-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에게 번지는 전력 요금 인플레이션
-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도 통신, 전력 등 인프라와 세금 혜택 등의 이점으로 데이터센터가 가장 밀집된 곳은 북부 버지니아 지역. 전력 요금 상승은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뿐 아니라 해당 권역 전반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부담
- 버지니아 24/25년 용량시장 입찰에서 PJM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요금이 25/26년 입찰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요금 격차가 사라진 바 있음. 버지니아주의 전력요금 인상률은 13%로 미국 평균 인상률(5.1%) 대비 2.5배 수준

BTM 수혜 관점 유지

- 이번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은 기대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발표였으나 여전히 BTM에 우호적인 정책
- 서명에 참여한 하이퍼스케일향으로 추가적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발전기(CAT, CMI), 온사이트(BE), 데이터센터 인프라(VRT, ETN) 업체의 수혜가 예상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Nebius에 20억 달러 투자,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플랫폼 NemoClaw 공개 예정

- 엔비디아가 AI 클라우드 전문기업 Nebius Group(NASDAQ: NBIS)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
- SEC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주 당 94.94달러에 지분 약 8.3%를 매입하는 구조다. 양사는 AI 팩토리 설계, 추론 및 에이전틱 AI 스택 구축, 인프라 배포, 플릿 관리 전반에 걸쳐 협업하며, Nebius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Rubin GPU, Vera CPU, BlueField 스토리지 시스템을 조기 도입해 2030년까지 5G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구축할 계획

- 엔비디아가 오픈소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AI 에이전트 플랫폼 NemoClaw를 준비 중. 3월 15~19일 열리는 GTC 2026에서 공식 공개할 것으로 예상
- 엔비디아는 이미 Salesforce, Cisco, Google, Adobe, CrowdStrike 등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타진하고 있으며, 오픈소스 특성상 파트너사에 무상 제공하되, 프로젝트 기여를 조건으로 조기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
- NemoClaw는 엔비디아 칩 탑재 여부와 무관하게 활용 가능한 하드웨어 비종속적 플랫폼으로 설계되었고, 보안 및 프라이버시 도구를 내장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자율 에이전트 배포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이번 행보의 배경에는 올해 초 폭발적으로 확산된 오픈소스 에이전트 OpenClaw의 영향이 크며, 젠슨 황 CEO는 OpenClaw이 리눅스 커널이 30년 걸린 수준의 채택률을 단 3주 만에 달성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알파벳(GOOGL.US): Gemini 기반 Ask Maps 출시

- 구글이 자사 지도 서비스에 Gemini AI를 접목한 새로운 기능 Ask Maps를 공식 출시
- 월간 활성 사용자 20억 명 이상을 보유한 구글맵에 대화형 챗봇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것으로, 사용자가 자연어로 복잡한 실생활 질문을 던지면 Gemini 모델이 리뷰, 위치 정보, 사용자 과거 검색·저장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개인화된 추천을 지도와 함께 제공
- 예컨대 여행 경로상의 추천 경유지를 물으면 경로, 예상 소요시간, 실제 방문자들의 팁까지 함께 제시하며, 마음에 드는 식당이 있으면 바로 예약까지 연결하는 등 탐색에서 행동까지의 전환을 앱 내에서 완결
- 동시에 10년 만의 최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로 소개된 Immersive Navigation도 함께 출시. Gemini가 스트리트뷰와 항공 이미지를 분석해 건물·고가도로·지형을 반영한 3D 뷰와 차선·횡단보도·신호등 등 주요 도로 정보를 시각화하는 기능
- Ask Maps는 미국과 인도에서 안드로이드·iOS 대상으로 우선 롤아웃되며 데스크톱은 추후 지원 예정

아마존(AMZN.US): AI 코딩 도구 관련 연쇄 장애에 긴급 내부 점검 돌입, 채권 발행에 1,260억 달러 수요 집중

- 아마존이 AI 지원 코딩 오류와 연관된 일련의 서비스 장애를 논의하기 위해 리테일 기술 조직의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 한 주 동안 높은 영향 범위의 Sev 1급 장애가 4건 발생한 데 따른 것. 지난 목요일에는 약 6시간 동안 웹사이트와 앱에서 결제, 계정 정보 접근, 상품 가격 표시가 불가능한 대규모 장애가 있었음
- 아마존 측은 AI와 관련된 사고는 단 한 건이며 AI가 작성한 코드가 원인인 경우는 없고, 엔지니어가 AI 에이전트의 부정확한 조언을 따른 것이 문제였다고 해명

- 아마존이 미국 채권 시장에서 약 1,260억 달러의 피크 수요를 끌어모으며, 역대 최대 규모 회사채 발행 사례 중 하나를 기록
- 목표 발행 규모는 370억~420억 달러 수준으로, 지난달 오라클의 1,290억 달러 오더북에는 소폭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해 10월 메타의 1,2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 당초 250억~300억 달러로 제시되었던 발행 규모가 수요 과열로 상향 조정
- 미국 내 발행분은 2년물부터 50년물(2076년 만기)까지 11개 트랜치로 구성되었으며, 최장기물인 50년물의 스프레드는 국채 대비 130bp로 책정
- 이와 별도로 유로화 시장에서도 최소 100억 유로(약 116억 달러) 규모의 8개 트랜치 채권 발행을 준비 중

메타(META.US): AI 에이전트 소셜네트워크 Moltbook 인수, 자체 AI 추론 칩 MTIA 4세대 로드맵 공개

- 메타가 AI 에이전트 전용 소셜 미디어 플랫폼 Moltbook을 인수. CEO Matt Schlicht와 COO Ben Parr가 전 Scale AI CEO Alexandr Wang이 이끄는 Meta Superintelligence Labs(MSL)에 합류
- Moltbook은 올해 1월 출시된 Reddit 형태의 플랫폼으로, AI 에이전트들이 자율적으로 게시·댓글·투표하며 상호작용하는 구조. 출시 수일 만에 수백만 개의 봇이 등록되며 실리콘밸리의 화제가 되었고, 올해 초 폭발적으로 확산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OpenClaw(구 Clawdbot/Moltbot)를 기반으로 구축
- 다만 보안 연구자들은 Moltbook의 Supabase 인증 정보가 한동안 비보호 상태로 노출되어 인간 사용자가 AI 에이전트를 사칭해 자극적인 가짜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었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지적

- 메타가 자체 설계 AI 칩 라인업인 MTIA(Meta Training and Inference Accelerator) 시리즈의 4개 신규 세대(MTIA 300, 400, 450, 500)를 공개. 약 6개월 간격으로 신칩을 출시하는 이례적으로 빠른 개발 주기를 채택
- MTIA 300은 이미 프로덕션에 투입되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랭킹·추천 시스템을 구동 중이고, MTIA 400은 랩 테스트를 완료해 데이터센터 배포 직전 단계이며, MTIA 450과 500은 2027년 초 순차 양산에 들어갈 예정
- 칩들은 TSMC가 제조하고 Broadcom과 협력 설계하는 구조로, GenAI 추론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으나 대규모 LLM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오픈AI(비상장): ChatGPT에 인터랙티브 시각화 기능 도입

- OpenAI가 ChatGPT에 동적 시각 설명(dynamic visual explanations) 기능을 새롭게 도입
- 이 기능은 수식, 변수, 수학적 관계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인터랙티브 모듈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접 수치를 조절하면 결과가 즉시 반영되는 구조
-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탐구할 때 삼각형 변의 길이를 조정하면 빗변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 현재 이항 제곱, 샤를의 법칙, 원의 넓이, 복리, 쿨롱의 법칙, 옴의 법칙 등 70개 이상의 수학·과학 주제에 대해 시각화가 제공되며, 향후 확대할 계획

앤스로픽(비상장): 마이크로소프트, 펜타곤의 Anthropic 공급망 리스크 지정에 법적 개입하며 임시 차단 명령 요청

-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방법원에 아미쿠스 브리프(법정조언서)를 제출하며, 펜타곤이 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명령(TRO)을 내려달라고 요청
- 마이크로소프트는 TRO 없이는 자사를 포함한 기술 기업들이 국방부에 제공 중인 기존 제품·계약 구성을 즉시 변경해야 하며, 이는 미군의 AI 운용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경고
- 이와 별도로 전직 공군·육군·해군 장관 및 해안경비대 사령관 등 22명의 퇴역 고위 군 관계자도 법정 서한을 제출해, 이번 조치가 계약 분쟁에 대한 정부 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
- 마이크로소프트는 Anthropic에 50억 달러 투자 약정·Azure 300억 달러 컴퓨팅 계약을 맺고 있음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3월 13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